발 간 사

어느덧 지루한 무더위와 장마를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깃드시고 연구에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가 지구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가 해마다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지난 5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처방안"을 대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훌륭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구의 보존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환경법연구 제30권 제2호에는 지난 5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제되었던 국내외 학자님들의 논문과 회원님들이 새로 보내주신 옥고들이 게재됩니다. 학술대회에서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해외에서 오신 학자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이번호에 게재되는 옥고를 보내주진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 속에서도 정해진 일정 안에 논문심사를 마쳐 차질 없이 학회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홍준형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여러분 및 출간을 위한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송동수 출판이사와 임현 출판간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는 9월말부터 4회 정도, 학회지의 발간은 금년 8월말에 이어 3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선정과 토론,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의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하는 공동학술대회, 11월초 국제

람사르 총회와 관련된 학술대회, 12월말 환경관련 4대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5일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춘환